

《두시언해》(2판)에 반영된 구개음화현상에 대한 분석

최 송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며 커다란 힘입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4페이지)

《두시언해》(2판)은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류실된 정음문헌에 대한 복구작업의 일환으로 1632년 경상도에서 간행되였다. 2판은 초판(1481년)을 그대로 찍어낸것이 아니라 당시의 언어현상을 반영하여 새로 고쳐서 찍어낸것으로서 17세기초의 조선어 특히는 그 시기 경상도방언의 일부를 반영하고있다.

《두시언해》(2판)에 반영된 가장 두드러진 언어현상은 구개음화현상이다. 구개음화란 비경구개음이 뒤따르는 모음 [i]나 반모음[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두시언해》(2판)에 반영된 구개음화현상의 양상과 그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두시언해》(2판)에 반영된 구개음화현상은 《ㄷ, ㅌ》구개음화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ㄷ, ㅌ》구개음화는 치조음 [t], [tʰ]가 경구개모음 [i]나 경구개반모음 [j]앞에서 경구개음 [tʃ], [tʃʰ]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음운적변화에 속한다. 《두시언해》(2판)을 초판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량의 《ㄷ, ㅌ》의 구개음화가 나타나는것을 볼수 있다.

우선 《두시언해》(2판)에는 《ㄷ》구개음화현상이 반영되어있다.(괄호안의것은 초판의 표기이다.)

○ 어간음절에서

검지(검디)(←23:8), 먹지(←먹디)(17:19), 뭇 ㄹ지(←뭇 ㄹ디)(6:5)

잇지(←잇디)(有, 7:14), 너기지(←너기디)(7:11)

아지(←아디)(知, 7:17), 절 ㅎ지(←절 ㅎ디)(17:4)

어진(←어딘)(25:32), 모진 버미(←모딘 버미)(16:37)

넙지(←넙디)(8:68), 티질엇고(←티딜엇고)(冲, 21:9)

○ 어두음절에서

지위(←디위)(節, 7:32), 지팻노라(←디팻노라)(倚, 8:37)

직먹느니(←딕먹느니)(啄, 11:21), 지눇다(←디눇다)(落, 12:31)

조호미(←도호미)(3:38), 더리(←저리)(寺, 9:17)

중복을 제외하고 어간음절에서 구개음화된 실례가 83개라면 어두음절에서는 25개밖에 안된다. 이로부터 전자의 변화가 후자의 변화보다 더 일반적이였음을 알수 있다.

구개음화는 일반적으로 고유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두시언해》(2판)에서는 《장상(←당상)(長常, 8:28)》과 같이 한자어의 경우에도 《ㄷ》구개음화가 나타났다.

또한 《두시언해》(2판)에는 《ㅌ》구개음화현상이 반영되어있다.

○ 어간음절에서

고쳐(←고터)(23:30), 애와쳐(←애와터)(憤, 24:8)

담 ㄱ치(←담 ㄱ티)(25:52), 무쳐(←무터)(點, 15:12)

고치이노라(←고티이노라)(11:33), 브쳐(←브터)(11:5)

노치(←노티)(放, 8:32), 도치(←도티)(3:50)

두위쳐(←두위터)(飜, 3:11), 기칠가(←기틸가)(胎, 6:44)

○ 어두음절에서

치교(티교)(打, 11:14)

우의 실례들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ㄷ, ㄷ》구개음화 역시 대부분 어간음절(56개)에서만 발견되었다. 어두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한자어에서도 《ㄷ, ㄷ》구개음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유어에서의 변화가 일반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볼수 있다.

○ 壯치(←壯티) 몬ㅎ도다(17:9)

蕃盛치(←蕃盛티) 몬ㅎ엿도다(8:32)

議論치(←議論티) 몬ㅎ리로다(8:12)

우의 실례들을 통하여 《ㄷ, ㄷ》가 구개음화를 일으켜 《ㅈ, ㅊ》로 된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ㄷ, ㄷ》의 구개음화가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있는것인지 혹은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것인지 알기 어렵다. 어원적으로 모음 [i]나 반모음 [j]앞에서의 [tʃ], [tʃʰ]가 [t], [tʰ]로 잘못 기록되어있는 실례가 나타났다.

○ 어간음절에서

—가딘(持, 17:10), 가디(枝, 17:5)

오덕(7:12), ㅎ고더(11:36)

흔가디(16:33), 고디(花, 15:6)

드리고더(11:28), 가듀리라(携, 8:34)

—스ㅍ티ㅎ눗다(通, 11:24), 스티노라(想, 11:34)

ㄱㄹ터(引, 22:52), 아터려ㅎㄴ다(厭, 25:22)

○ 어두음절에서

—디ㅍ(9:14), 디논(負, 7:39)

딛논(作, 9:39), 더그니(14:20)

지춘(羽, 15:33)

—립디 아니홀식(14:71), 텅ㅎ거든(請, 11:11)

《지, 치》가 《디, 티》로 적혔다는 사실은 이미 구개음화가 전반적으로 실현되어 《두시언해》(2판)을 만들었던 《디, 지》와 《티, 치》가 서로 똑같은 음절 즉 [tʃi], [tʃiʰ]를 표기하기 위한 기호로 의식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그러한 문자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디, 티》를 《지, 치》로 적을수 있었고 반대로 《지, 치》를 《디, 티》로 쓸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두시언해》(2판)에는 구개음화가 되지 않고 어간음절과 어두음절에서 여전히 《ㄷ, ㄷ》로 적은 실례가 많이 나타났다.

○ 어간음절에서

—모딘 새(17:11), 두디 몬ㅎ면(17:24), 니ㄹ디 말라(17:24)

妖怪 | 립디 아니ㅎ니(3:60), 닐위디 몬ㅎ리로소니(3:59)

엽디 아니ㅎ니(7:35), ㄴ디 몬ㅎ니(17:21)

—ㄱ리터(遮, 17:9) 便安티(18:14), 바티눗다(1:23)

○ 어두음절에서

- 디나가디(17:20), 디내니(17:23), 덕먹게 ㅎ야(17:1)
디논 나래(17:18), 도흔 싸해(1:57), 더론 술윗(1:27)
-티눛다(3:20), 티소엣도다(8:3), 티질엣고(21:9)

우의 실례들은 각각 어간음절에서와 어두음절에서 《ㄷ, ㄷ》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두시언해》(2판)에 반영된 구개음화현상은 《ㄴ》구개음화양상을 보이고있다.

《ㄴ》구개음화는 어두의 치조음 [n]이 경구개모음 [i]나 경구개반모음 [j]앞에서 구개성변이음 [ɲ]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구개성변이음이란 특정한 음성적환경에 따라 구개음으로 실현된 한 음운의 변이음을 말한다.

《두시언해》초판이 간행된 15세기 후반기까지도 《ㄴ》은 치조음 [n]이었기때문에 《니(齒)》, 닛다, ㄴ, 너름과 같이 어두에 올수 있었다. 하지만 17세기초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ㄴ》구개음화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는데 《두시언해》(2판)에는 이것을 반영한 실례가 간혹 나타났다.

- 열도다(←년도다)(淺, 3:19), 여트리로다(←너트리로다)(24:34)
열디 아니 ㅎ며(←년디 아니 ㅎ며)(24:42), 열게(←년게)(19:22)

우의 실례는 《ㄴ》구개음화와 관련된것들로서 어두음절의 《년-》에 한하여 나타났다. 《열다(淺)》의 뜻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앞에서 《ㄷ/ㄷ》교체를 보이는 형용사어간 《년-》은 중간본에 이르러 대부분 《열-》으로 표기되었다. 즉 치조음 [n]이 뒤따르는 [j]에 이끌려 구개성변이음 [ɲ]로 바뀌고 표기상 《ㄴ》이 《ㅇ》로 적히게 된것이다.

《두시언해》(2판)에서는 《ㄴ》구개음화의 역류추적표기로 보이는 실례가 있다. 《너기게(←너기게)(擬, 20:31)》가 그것이다. 여기서 초간본의 《너기-》와 중간본의 《너기-》의 차이를 단순한 표기차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左는 윈너기라(훈언, 13)
方面은 너기라 ㅎ듯흔 마리라(석상, 19:22)
憫然은 어엿비 너기실 씨라(훈언, 1)
쁘들 올히 너기샤(월인, 33)

우의 실례들에서와 같이 훈민정음창제초기문헌들에서는 《너기-》와 《너기-》가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너기-》가 《혜아릴 擬》에 해당하는 뜻을 가졌다면 《너기-》는 《방향, 쪽》의 뜻을 가지고 쓰이었다.

《두시언해》(2판)에서 《너기-》와 《너기-》가 구별없이 쓰이였으며 이로부터 적어도 17세기초 경상도지역에서는 《ㄴ》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알수 있다.

물론 《두시언해》(2판)의 표기에는 《넛》(舊, 18:9b)과 같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따라서 《두시언해》(2판)에 초판의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두시언해》(2판)에 반영된 구개음화현상은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양상을 보이고있다.

《ㄱ》구개음화는 연구개음 [k]이 경구개모음 [i]나 경구개반모음 [j]앞에서 경구개음 [tɕ]로 변하는 현상이다. 《ㄱ》구개음화는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1571~1573)에서 처음 나타나고 《두시언해》(2판), 《미타참략초(彌陀懺略抄)》의 《넘불보권문(念佛普勸文)》(1704), 《현씨행적(玄氏行蹟)》(1776), 《림종정념결(臨終正念訣)》(1741) 등의 경상도에서 간행된 문헌에서 연이어 나타났다. 그중 《두시언해》(2판)에는 2개의 실례만 있는데 비록 그 수가 적지만 17세기

초 경상도지역에서의 《ㄱ》구개음화진행정형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 -봄과 저으레(←겨스레)(冬, 7:28)

-*기룩마 기훈(←지훈) 只 룰(鞍, 11:31)

《겨스레》가 중간본에서 《저으레》로 변한것은 어두의 연구개음 [k]가 뒤따르는 반모음 [j]에 동화를 입어 경구개음 [tʃ]로 변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훈》이 《기훈》으로 된것은 명백히 잘못된 기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두시언해》(2판)을 전후로 경상도에서 간행된 기타 문헌들에서도 확인된다.

○ ㄱ을과 저을과(미타참략초, 念佛:4), 전줄 되 업고(미타참략초, 念佛:4)

사드새지름(油, 촌가구급방), 주검을 지드리며(림종정념결, 2)

우와 같은 실례들을 통하여 《두시언해》(2판)이 간행되던 시기 해당 지역에서 《ㄱ》구개음화가 [j]나 [j]앞에서 모두 실현되었음을 알수 있다.

《ㅎ》구개음화는 모음 [i]나 반모음 [j]앞에서 후음 [h]가 구개음 [ʃ]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ㅎ》구개음화는 16세기말 전라도에서 간행된 《사범어록》(1577)에 처음 나타났는데 《두시언해》(2판)에도 나타났다.

○ 나모지논 길ㅎ로 셔(←혀)가고(引, 14:30)

우의 실례는 어두의 [h]이 [j]앞에서 동화를 입어 [ʃ]로 바뀐 경우를 보여주는데 《ㄴ》구개음화,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어두음절에서만 실현되었다. 이것만으로는 《두시언해》(2판)이 간행되던 시기 《ㅎ》구개음화현상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수 없다. 이로부터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고있는 《두시언해》(2판)이외의 기타 문헌들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 -성데(兄弟, 사범어록,15),

-館中도 심심ㅎ매(첩해신어, 9:11), 실흠ㅎ다(역어류해, 하:23)

우의 실례들은 각각 [j], [j]앞에서의 《ㅎ》구개음화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례가 나타나는 해당 문헌의 간행순서로부터 《ㅎ》구개음화가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에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방언에서 발생하여 점차 중부방언으로 그 영향을 넓혀나갔음을 알수 있다. 《역어류해》 등과 같이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들에는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ㅎ》구개음화의 실례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즉 《두시언해》(2판)이 간행된 17세기초 남부방언에는 《ㅎ》구개음화가 존재하였으나 중부방언에는 아직 이런 현상이 없었던것이다.

구개음화는 입말에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한데로부터 출현하였다. 《ㅈ, ㅊ》의 구개음화는 17세기초에 서북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미 일반화되었으나 《ㄷ, ㄸ》구개음화는 당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방언에서 완성되고 기타 지역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것으로 짐작된다.

《ㄱ》구개음화는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에 함경도방언과 경상도방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중부방언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 《ㅎ》구개음화는 전라도, 경상도방언에만 존재했던것으로 보여진다.

구개음화가 지역적차이를 가지고 존재하게 된 원인과 특히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방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ㄷ, ㄸ》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원인은 주로 사회언어생활의 변화와 관련된다.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방언에서 《ㄷ, ㄸ》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은것은 서북방언에서

《ㄱ》, 《ㄲ》은 여전히 [ts], [tsʰ]으로 발음되었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것처럼 《ㄷ, ㅌ》구개음화는 어간음절과 어두음절에서 다 실현되었다면 《ㄱ》구개음화, 《ㅎ》와 《ㄴ》구개음화는 어두에서만 실현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ㄷ, ㅌ》의 구개음화는 어두와 어간음절중 후자의 위치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것이다.

사실 어간과 어두에서의 《ㄷ, ㅌ》구개음화는 17세기초에 비로소 나타난것이 아니라 16세기 문헌에서도 간혹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여전히 어간음절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 색장가리(升麻, 촌가구급방), 오직(사법어록,5)

인과 천과톨(사법어록, 25)

《ㄷ, ㅌ》구개음화는 맨 처음 어간음절에서부터 일어나 점차 어두음절에까지 확대되었다. 구개음화가 어두음절에서보다 어간음절에서 먼저 일어났다는것은 한 문장안에 《ㄷ, ㅌ》구개음화가 일어날수 있는 조건을 갖춘것들이 어두음절과 어간음절의것이 동시에 출현할 때의 표기를 보아도 쉽게 알수 있다.

○ 내의 病 도치 못호물 어엿비 너겨(3:50)

길 널 사꺾미 디나가지 아니ㅎ야셔(6:41)

노푼 城을 디나돏다... 불근 여르믄 時로 ㅼ러덤직ㅎ니(6:16)

冠을 고치이노라... 시내를 조차 디거늘(11:33)

한 문장안에 《ㄷ, ㅌ》구개음화될수 있는 조건을 갖춘것들이 2개이상 출현할 때에는 어간음절의것이 구개음화되어 표기되고 어두음절의것은 구개음화되지 않고 표기되었다.

맨 처음 어간에서 일어나던 《ㄷ, ㅌ》구개음화는 역사적인 흐름속에서 발음을 좀더 쉽게 내기 위한데로부터 어두위치로까지 확대되어간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와 같이 《두시언해》(2판)에는 《ㄷ, ㅌ》구개음화, 《ㄴ, ㄱ, ㅎ》구개음화 등이 모두 반영되고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17세기초의 경상도방언에서 이러한 구개음화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있었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중국 실습생임)